# 여수 폭염 중대경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가동

## 상황판단회의 긴급 개최… 시민 피해 최소화 총력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8월 1일 오전 11시 여수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4개 분야 14개 부서와 27개 읍면동 6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체계를 즉시 가동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기온이 39℃ 이상이거나 체감온도가 38℃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폭염중대경보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긴급 개최해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처음 발령된 폭염중대경보인 만큼 분야별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및 냉방시설 집중점검 ▲취약계층 안부 확인 하루 2회 실시 ▲쿨링포그·바닥분수 운영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 ▲도로 살수차 운행 확대(1일 3회 → 4회) 등이다.

읍면동에서는 폭염 취약지역과 야외활동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찰과 폭염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급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민간 건설현장과 야외작업 사업장에도 폭염 대응수칙 준수와 휴식시간 보장, 작업시간 조정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서영학 시장은 "현장에서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사업장에서도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폭염특보 단계에 맞춰 대응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무더위쉼터 이용 등 폭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읍면동 중심의 예찰 활동과 생활 밀착형 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시설물 점검과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기상 상황 확인과 폭염 행동요령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폭염중대경보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긴급 개최해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 순천시, 시민 체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선발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30일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 총 14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3건의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우수상은 공원녹지과 박찬양 주무관의 '자원은 다시 쓰고, 불편은 먼저 찾고, 안전은 밝히다' 사례가 차지했다. 수목과 보도블록을 재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야간 조명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문화예술과 최세라 주무관의'지역 콘텐츠 인재 선순환 실현'과 왕조2동 정혁진 주무관의 '왕조2동 파크골프 교육 메카 조성'이 선정됐다.

/이유빈 기자

## 광양시, 백암 이경모 사진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 기념 강연회 개최

광양시는 대한민국 대표 기록사진가 백암 이경모(1926~2001)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광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백암 이경모 사진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과 연계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현재 진행 중인 기념전과 연계하여 마련된 강연회로, 이경모의 삶과 작품세계를 비롯해 한국 현대사 기록사진의 의미와 문화유산 사진의 가치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연회에는 서울예술대학교 ▲사진학과 정예찬의 '가족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경모'▲白巖사진연구소 이승준 소장의 '가족사진으로 본 이경모 선생' ▲광양지역사연구회 마로희양 이은철 대표의 '백암 이경모 선생, 고향 광양의 서정을 담다' ▲역사가 주철희 선생의 '이경모 사진 속 대한민국 현대사' ▲동신대학교 이경모카메라박물관 허용무 관장의 '이경모 사진의 중요성과 남겨진 과제'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전 소장 이경민 선생의 '이경모와 함께 문화재사진사를 걷다' 등 총 6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강연회는 이경모를 단순한 보도사진가가 아닌, 한국 현대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지역의 삶을 기록한 기록사진가로 재조명하고, 그의 사진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백암 이경모 사진가의 작품과 기록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 곡성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곡성군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급식 운영 마을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식중독과 폭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식재료 보관 및 조리기구 위생관리 ▲교차오염 방지 ▲조리시설 청결 상태 ▲안전관리 점검표 비치 여부 및 점검자 지정 현황 등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환경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군은 현장에서 마을 대표와 조리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수렴된 의견은 내년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마을공동급식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죽곡면 신풍마을의 한 주민은 "농번기에는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며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마을공동급식이 농사일은 물론 공동체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공동급식 운영을 위해 현장 관리와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일규 기자

## 구례군, 농산물 이용 농축액 제조기술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구례군은 지난 7월 30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이용 농축액 제조기술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 특산물인 블루베리와 배를 연중 활용할 수 있는 가공용 농축액(반가공 원료) 제조기술 개발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가공센터 사용 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용역 수행사인 지리산이야기영농조합법인(대표 강종상)의 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블루베리 및 배 농축액 2종의 표준 제조공정(안)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해당 농축액을 활용한 요거트, 배 에이드 등의 시음·시식 평가와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군은 용역 완료 후 가공센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농축액 제조 표준기술 전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가들이 개별 아이디어를 접목한 디저트, 음료 베이스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길선 구례군수는"수확기가 지난 농산물을 표준화된 농축액으로 가공해 연중 상시 활용하게 된다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가공제품 창업과 농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농산물 가공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